

商標制度 統一條約 協議

91년까지 條約案 확정 계획

商標制度도 세계적으로 統一化 할 움직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特許法 統一化條約에 이어 商標制度도 국제적으로 統一化할 전문가 회의 등이 개최되고 있어 工業 所有權 制度 나아가 知的 所有權 制度가 머지않아 세계적으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

WIPO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商標制度 統一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商標制度의 統一을 위한 條約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전문가회의에서는 ▲각국이 서비스마크 등록제도의 채택 ▲먼저 출원한 자에게 商標를 우선 인정하는 先出願主義의 統一 ▲商標權 존속기간의 통일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현재 WIPO의 계획은 1991년말까지 條約案을 확정하며, 92년경에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商標制度 통일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商標制度의 先出願主義 서비스마크 등이 핵심적인 논의 사항인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서비스마크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어서 통일조약 체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

라는 전망이다.

서비스마크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현재 88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나, 스위스·日本 등 일부 국가가 아직 도입을 미루고 있는데, 스위스는 91년에, 日本은 92년에 도입할 방침을 이미 결정해 놓고 있어 각국의 의견조정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商標의 사용권자 문제에 대하여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美國과 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국가들 간에 대립이 예상된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先出願主義로 통일될 것이 예상되지만, 美國의 特許法上의 先發明主義와 함께 先使用主義를 고집할 경우 조약체결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한편, 商標制度의 통일조약 체결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 87년에 개최된 총회에서 1~2년 후에 商標制度 통일조약에 착수할 것이라고 결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아랍에미레이트 商標法 제정

최근들어 다량의 偽造商品 流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골머리를 앓고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연방공화국(U. A. E)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偽造商品防止法의 기초가 될 商標法초안을 작성하여 지난달 11월31일 내각에 제출했다.

特許權 존속기간 20년 WIPO特許法통일조약서 合議

지난 11월13일부터 개최된 WIPO의 특허제도통일을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特許權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이 양보했으며, 美國도 出願시점으로 하자는 의견을 양보하여 이같이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特許法統一條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는 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美國이 양보를 하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도 해결을 보지 못했다. <♣>

홍콩所在 中國特許代理機構

「永新專利代理有限公司, 電話 및 Fax. 番號 變更

區 分	旧	新
電 話	852-3-7391818	852-7391818
F A X	852-3-7213692	852-7213692